





##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1~12)

So the LORD said to him, "Who has made man's mouth? Or who makes the mute, the deaf, the seeing, or the blind? Have not I, the LORD? "Now therefore, go, and I will be with your mouth and teach you what you shall say" (Ex 4:11~12)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후 어떻게 도우실까요?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요(출 2:11~22)?

- 2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출 2:23~25, 3:7~10)?

- 3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며 다섯 번(출3:11, 13, 4:1, 10, 13)이나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4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의 소명(부르심)을 생각해보고 글로 정리해 봅시다(롬 1:5~6, 11:29).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롬 6:13

Blank writing lines for the first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first section.

이

롬 11:29

Blank writing lines for the second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second section.

화

고전 7:7

Blank writing lines for the third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third section.

수

딤후 4:16

Blank writing lines for the first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first section.

목

딤후 1:8

Blank writing lines for the second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second section.

금

딤후 2:9

Blank writing lines for the third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third section.

토

딤후 2:15

Blank writing lines for the fourth section.

Blank writing lines for the fourth section.



## 보트 속에서의 낮잠

몇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나이가 가라 폭포의 안내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 할 일이 없으므로 폭포 훨씬 위쪽에 보트를 매어 놓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 보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보트는 잘 매어 두었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므로, 마침내 밧줄이 풀려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든 청년을 태운 채 물살을 따라 떠내려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덕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보트 속의 청년이 까딱 잘못하면 수천만길 폭포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폭포에 닿기 전에 그를 깨워보려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 보트는 강 가운데 빠죽 나와 있는 바위에 걸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언덕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열을 내서 잠자고 있는 청년을 깨우려고 하였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라! 저 바위에 올라가라!”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닥쳐오는 위험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보트는 물결에 흔들리어 조금 후에는 바위를 떠나 점점 빨리 폭포를 향해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이 불쌍한 청년이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뇌성과 같은 소리를 동반한 폭포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폭포의 꼭대기에서부터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자는 잠깐 사이에 죽음에 삼켜 버렸다는 사실!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오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관심은 이 청년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와 같이 깊은 잠속에 빠져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14)**



질문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결길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구원 받은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못 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처럼 육신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구원 받기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 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신 싸워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힘써야 할 기도나 말씀이나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결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쉽게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데마’를 들 수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도 했으나(골 4:14)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몬 1:24)**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말마디아로 갔고 (딤후 4:10)**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큰 고난과 화를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죄로 인해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고전 11:30).